

레드벨벳, 씨스타 다솜·효린... '서머퀸'의 귀환

여름철 음원 강자 레드벨벳 1년8개월만에 '퀸덤' 발매
다시 뭉친 효린과 다솜 신곡 10일 발매... 음원 수익 기부

여름철에 낸 곡이 잇따라 히트하며 '서머퀸'이라 불리는 걸그룹들이 이번 여름 다시 한번 서머송을 들고 돌아온다.

레드벨벳은 오는 16일 여섯 곡이 수록된 새 미니앨범 '퀸덤'(Queendom)을 발매한다.

2019년 12월 발표한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이후 1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선보이는 앨범이다.

레드벨벳은 그동안 대표 히트곡인 '빨간맛'을 비롯해 '파워 업', '음파음파', '집살라밤' 등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여름철 음원 강자로 거듭났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여름이다! 레드벨벳 흥을 돋우자!"라는 글을 올린 만큼 레드벨벳 신보 역시 여름을 겨냥한 곡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레드벨벳은 전날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데뷔 7주년 기념 방송을 하며 컴백 분위기를 예열했다.

웬디는 "벌써 7주년이다. 선배님들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했고, 조이는 "7년간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지만 힘든



걸그룹 씨스타 멤버였던 효린과 다솜의 신곡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때도 옆에 있어 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16일 데뷔 7주년과 신보 발매를 기념해



레드벨벳은 오는 16일 새 미니앨범 '퀸덤'(Queendom)을 발매한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비온드 라이브' 채널에서 온라인 팬 미팅도 열 예정이다.

'원조' 서머퀸 걸그룹인 씨스타 효린과 다솜은 프로젝트 신곡을 통해 다시 뭉친다.

컨텐츠랩 비보는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프로젝트 일환으로 효린과 다솜이 함께 부른 신곡이 오는 10일 발매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대중을 응원하고 음원 수익을 기부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이번 프

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공개된 발매 예고 사진에는 선글라스와 민소매 상의를 착용한 효린과 다솜의 모습이 담겨 있어 여름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2010년 데뷔한 4인조 그룹 씨스타는 '소 할', '셰이크 잇', '터치 마이 보디', '러빙 유' 등 여름에 발표한 댄스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17년 해체를 결정하며 팬과 대중의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JTBC '재벌집 막내아들' 여주인공에 신현빈 낙점 송중기와 호흡 맞춘

배우 신현빈(사진)이 JTBC가 내년 선보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여주인공으로 낙점됐다고 소속사 유본컴퍼니가 2일 밝혔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인 윤현우(송중기 분)가 재벌가의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화차를 사는 판타지극이다.



신현빈은 반부패수사부 검사로 정의 구현을 위해 서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승부사 서민영을 연기한다.

그는 '순양가(家)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민영으로 분해 순양가의 불법 승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진도준과 쫓고 쫓기는 레이스를 펼치며 사랑과 증오 사이를 오가는 진한 연기 앙상블을 보여줄 예정이다.

신현빈은 화제 속에 방영 중인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와 곧 방영을 앞둔 '너를 닮은 사람'에 이어 내년 기대작 '재벌집 막내아들'까지 캐스팅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연합뉴스

39살 연하 여성에 피소된 김용건 "출산·양육 최선"



'낙태강요 미수 혐의'로 피소
상대방측 "김용건 입장 사실과 달라"

배우 김용건(75·사진)이 39살 연하 여성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2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건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리솔의 임명장 변경을 통해 "제 잘못된 처신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이 어그러진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가 피소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용건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A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건과 A씨는 2008년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신 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아이를 낳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용건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5월 21일 자신의 변호사와 이

야기를 하라는 말을 끝으로 김용건의 연락을 차단하고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건은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다"고 임신 사실을 듣고 난 뒤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그 무엇보다 A씨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 회복, 새로 태어나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여라도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김용건 씨의 입장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선 변호사는 "A씨는 3월에 김용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며,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여전히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용건은 1967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예능을 통해 사랑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에... '유 퀴즈' 4일 결방

'미스터 트롯' 멤버 활동 재개

방송가도 코로나 19를 피하지 못했다.

tvN 간판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 퀴즈')는 오는 4일 방송을 쉬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유 퀴즈' 측은 "다음 주 방송은 재편집본이 방영되며, 다음 달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퀴즈'는 스태프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녹화에 참여한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유 퀴즈'의 MC 개그맨 유재석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자가격리를 지속하면서 녹화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격리에 들어간 '미스터트롯' 톱 6 멤버들은 격리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다.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의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고 지난달 30일 팬 카페를 통해 밝혔



'유 퀴즈' MC 유재석

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멤버들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장민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녹화에 참여한 멤버들도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영탁과 김희재까지 재검사 결과 확진으로 확인되면서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